



데이터의 그림자

연구소 콩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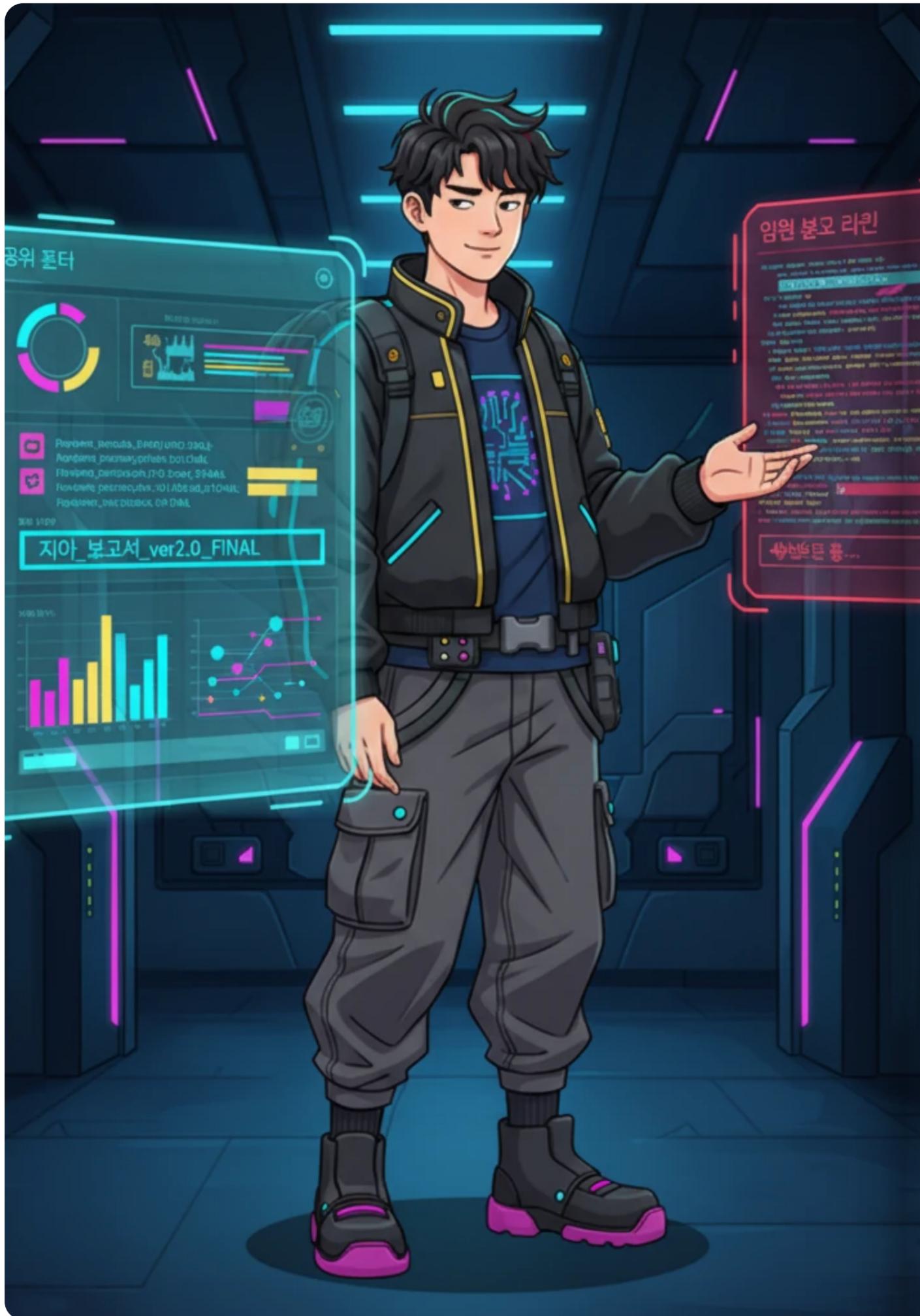
미래의 기업 사무실, 밤늦은 시간까지 네온 불빛이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빛난다. 박지아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얼굴을 비추며 반짝이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핀다. 건너편의 김민준도 자신의 화면을 응시하고, 방의 정적은 기술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으로만 채워진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번진다.



지아의 눈이 커지며 치명적인 숫자 오류가 그녀의 화면에 전기 빨간색으로 깜빡인다. 그녀는 반투명한 다층 인터페이스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데이터를 교차 확인한다. 벽면 스크린에 고정된 '정확성은 우리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빛나며 발견된 결함과 대조를 이룬다.



결연한 표정으로 지아는 수정된 데이터를 확정하고, 전기 녹색 코드가 성공적인 내부 공유 폴더 업로드를 확인하며 쏟아져 내린다. 그녀는 대외 발표 연기를 권고하는 메모를 추가한다. 그녀의 행동은 빛나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 무결성을 향한 조용한 간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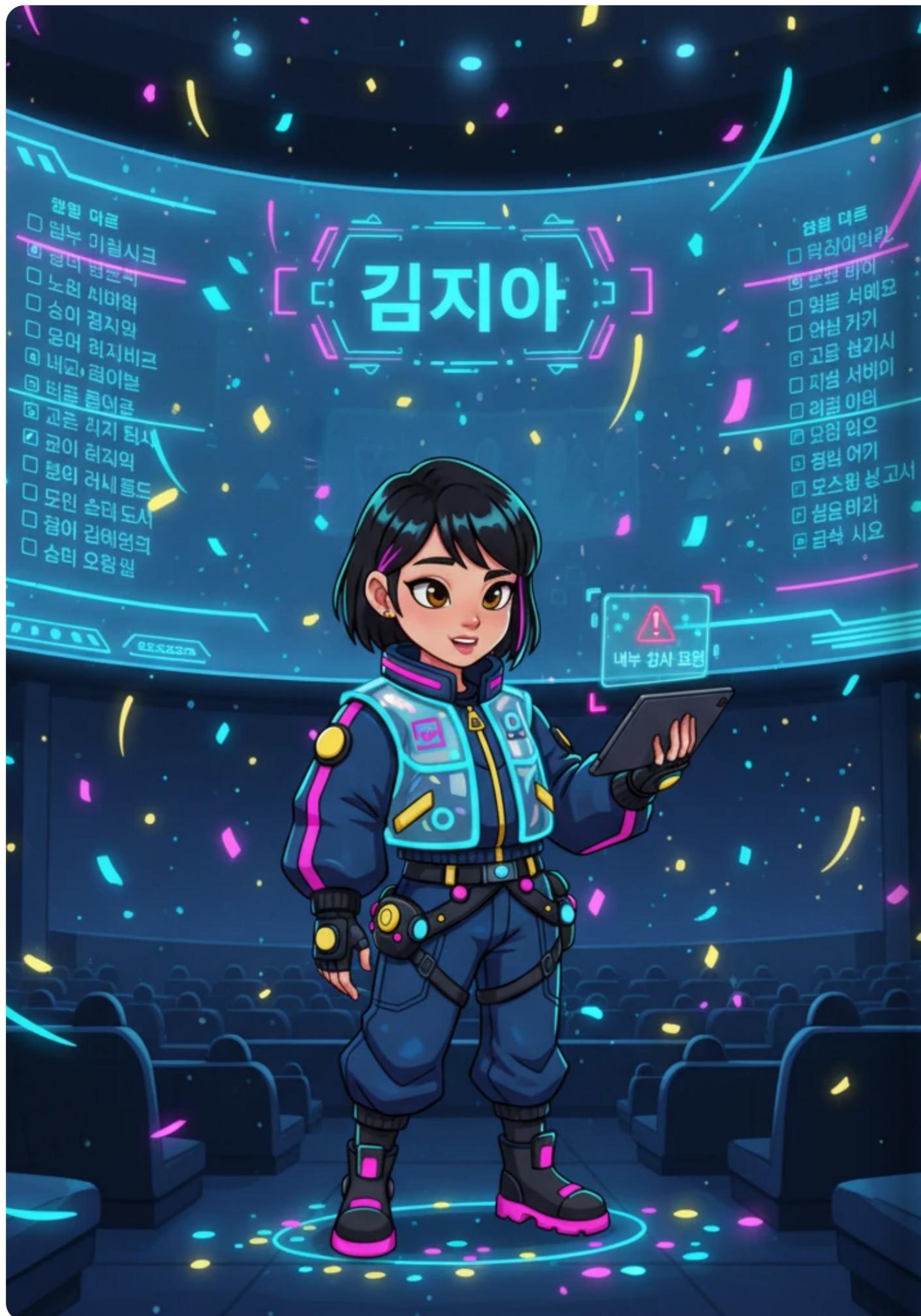


김민준은 공유 폴더에 접속하고, 지아의 업데이트된 파일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한다. 잠시 망설이더니 미묘한 비웃음이 입가에 번진다. 그는 빠르게 별도의 터미널을 열어, 원래의 잘못된 수치가 담긴 보고서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임원 보고 라인에 올린다. 그의 경력과 직위는 원래의 일정에 달려 있었다.

EXECUTIVE BOARDROOM



다음 날 아침, 임원 회의실 앞에서 민준은 지아를 발견한다. 그는 째고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운다. '고생했어요!' 그의 말이 무균의 금속 복도에 울려 퍼지며, 그들의 공유했지만 엇갈린 밤샘 작업을 조용히 인정하는 듯하다.



발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막을 내린다. 기업 강당에는 홀로그램 색종이가 비처럼 쏟아진다. 지아의 이름이 공로자 명단에 포함되어 축하 스크린에 스크롤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내부 감사 예정'이라는 싸늘한 알림이 깜빡인다. 디지털 축하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진다.



팀의 디지털 채팅창에서 축하 메시지가 갑자기 멈춘다. 팀원들은 조용히 채팅창을 닫고, 그들의 아바타는 어두운 배경 속으로 사라진다. 민준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추가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지아는 불안감에 휩싸여 수정 파일의 업로드 시간을 다시 확인한다.



며칠 후, 지아는 인사팀의 무균적이고 희미하게 불 밝혀진 심문실에 앉아 있다. 그녀의 데이터 기록 홀로그램이 질문과 함께 그녀 앞에 떠오른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무형의 목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정확성은 우리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벽에 불길하게 빛난다.



김민준은 빛나는 데이터 태블릿 더미를 들고 세련된 기업 복도를 자신감 있게 걷는다. 그는 인사과 사무실을 나서는 지아를 스쳐 지나간다. 지아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인정을 하지 않고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다. 건물의 금속성 웅웅거림이 그녀를 비웃는 듯하다.



성공적인 발표는 기업 뉴스레터에 찬사를 받으며 빛나는 공공 단말기에 게시된다. 팀은 새로운 고위험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밤늦게까지 회의실 불은 다시 밝게 타오르고, 또 다른 보고서가 진행 중이며, 또 다른 마감일이 다가온다. 창밖의 네온 도시 풍경은 건물 안의 인간 드라마에 무관심하게 빛난다.